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도는 19일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정부 SOC 예산은 올해 대비 14.2% 감소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도는 평창올림픽 관련 대형 건설사업 완료 시기와 겹치면서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성현기자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
회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강원도청에서 열리는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에 참석한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논의 오늘도 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위기에 몰린 강원건설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내 건설단체와 지원기관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강원도는 19일 도청 신관2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강원도산 건설자재 구매 촉진,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축소기조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 건설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신관호

지난해 건설공사 매출액 356조6000억 ‘역대 최대’

전년보다 28조1000억 증가

2016년 건설공사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28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18일 ‘2016년 기준 건설업 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공사 매출액은 총 35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90년 조사 이래 최대 규모다.

종합건설업 매출액이 226조2000억원, 전문직별 공사업 매출액이 13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각각 9.1%와 7.7% 증가했다.

전체 매출액 중 국내 매출은 31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조원(10.2%) 늘어

2016년 기준 건설업 매출액



난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공사업 매출이 부진했으나 2015년부터 이어진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건축건설업 매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건설매출액은 해외수주 감소 여파로 전년 대비 1조원(-2.3%) 줄어든 43조4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기준 건설업체 수는 총 6만9508

개로, 전년 대비 1611개(2.4%) 증가했다.

종합건설업체 수는 9766개로 124개(1.2%) 줄었으나 전문직별 공사업체 수가 1734개(3.0%)나 늘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종사자 수도 2015년 153만4000명에서 지난해 157만3000명으로 3만9000명(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건설업 종사자는 48만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전문직별 공사업 종사자가 109만4000명으로 3.8% 증가했다.

통계청은 급여총액과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영업이익 등을 포함, 건설업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도 106조3000억원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 12조원(1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봉승권기자

건설공제조합 올 순이익 2000억 넘을 듯

위험비용 676억원 감소 효과 22일 운영위... 경영실적 보고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이 올해 2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낼 전망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2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경영실적 보고와 함께 법인세 100억여원 절감을 위한 채권상각 승인, 전무이사 등 임원 3인에 대한 인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합의 올해 11월 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1855억원 규모. 이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720억원을 넘어선 액수다. 현 추세라면 올해 당기순이익은 최대 2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대형·우량 고객에 대한 상품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했고, 보증사고 예방 등 위험비용을 대폭 줄이는 등 지속적인 경영 쇄신의 결과”라며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 등 관련 위험

비용이 676억원 감소한 것이 순이익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런 경영 성과를 토대로 조합원 출자증권 1좌당 최대 3만원의 배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배당액(1좌당 2만4000원)보다 25% 늘어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안정적 경영에 보탬이 되고자 최고의 배당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합은 내년부터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보증, 선금금보증 등 주요 보증수수료의 기본요율을 낮추고, 조합원의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대금확정채권의 담보용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에도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수주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합원의 경영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